2019년 독도지킴이학교 활동 결과보고서

대전이문고등학교 독도사랑海반

지도교사 : **방 경 태**

1. 지도 목표

■ 지도의 필요성

일본은 최근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야욕과 군국주의화 책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공분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교육 현장은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을 이용한 의무감에 따른 강제적이고 일체적인 수업보다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각적인 독도 교육과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대전이문고등학교 **독도사랑海**'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 및 영토분쟁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일본의 책략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도의 역사와 분쟁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투철한 나라사랑과 우리 국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확실히 하고,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 지도의 목적

가.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환경 및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

다. **독도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국제법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게 한**다.

라. 독도 사랑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독도 사랑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추진 결과

월	일	활 동 명 칭*	추진 **	성 과***
4	5	동아리 조직 및 발대식 참여	○	제4회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본교 세종실에서 '2019 독도지킴이 발대식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EBS에서 방영된 '독도의 숨은 영웅들'를 보면서 자랑스러운 독도지킴이로서의 실천을 다짐함(4.19)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의 아름다운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군국주의화 책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면서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고 수호할 것을 다짐하면서 4개 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함.
	12.-13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참가**	**신규**	충청권 교육청(대전·충남·충북·세종)과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과 청소년중앙수련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공동 주최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에 대전시교육청 동아리 대표의 인원으로 우리 동아리 28명 전원이 참가, **호사카유지 교수의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으로 본 독도" 특강을 듣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짐.**
	22-26	독도 교육주간 운영	○	-독도 관련 최근 동영상 및 역사왜곡 동영상 시청 -독도 역사관련 문헌을 통한 독도 역사 왜곡 실태조사 및 매체를 통한 독도 이슈를 따라잡고 해결방안 모색 토의 토론 후 자기 생각 정리 글쓰기 -사회, 국사 교과를 중심으로 독도 관련 일본 교과서 비판 계기 교육
5	15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교육	X	학교 학사일정으로 금년에는 참석하지 못함.
	17	**독도 영토주권, 동해 명칭의 역사성 및 동해 표기의 당위성 특강**	**신규**	본교 세종실에서 외무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 안한별 외교사무관을 초청하여 한일간의 객관적인 사료를 중심으로 한 "독도 영토주권, 동해 명칭의 역사성 및 동해 표기의 당위성" 특강을 듣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위권 야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함.
	24	독도기자단 간담회	○	금년도 독도기자단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우리 독도사랑해 동아리 20명은 지난 4월, 나라 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소리 신문 독도기자단 미션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늘

				문제익 나라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장과 김동춘 본교 학교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이문고등학교 독도기자딘 간담회를 갖고 독도 동해 표기 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독도수호의 의지를 굳건히 함. 제2의 이사부 안용복이라는 독도기자단의 자긍심으로 독도수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할 각오를 다짐함.
6	7	독도사랑 교내 글짓기 대회	○	◆ 나라를 사랑하고 독도를 굳게 지키려는 의지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나라사랑 독도사랑 글짓기로 표현 1. 나라 사랑정신 함양 및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2. 독도 실상 홍보 및 독도 사랑 정신 함양 3. 평화 통일 의식 고취 및 저변 확산
	8 - 11	**독도탐방 독도사랑 실천**	**신규**	우리 동아리 소속 최지영, 양예진 등 2명이 지난 6월8일부터 11일까지 독도지킴이학교 학생을 대표하여 본교 전홍곤 선생님과 함께 독도탐방을 하고 돌아옴. 본래는 5월25일부터 28일까지 탐방이 계획되었으나 기상 악화로 2주가 연기되어 비가 오는 가운데 출발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10일 독도에 입항하는 데까지 성공.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오리엔엔터션 및 1박, 울릉도 해양포구류의 쉼터 퉁구미 해변, 거북바위, 독도케이블카 및 독도박물관 관람,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람, 울릉도 트레킹, 울릉도 관음도, 나리분지 관광, 청소년 독도교육 등을 울릉도에서 실시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땅 독도를 방문하여 태극기가 새겨진 '대한민국 우리 땅 독도' 현수막을 들고 감격적인 기념촬영 등을 함.
	14	**독도의용수비대 정신계승 교육**	**신규**	유네스코 동아리와 함께 본교 세종실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의 조차현 강사를 초청하여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수호정신과 나라사랑 정신 계승에 대한 특강을 청취함. 특강은 독도의 역사와 자연 환경,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그들이 남긴 정신,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과 그에 대응하는 대책 및 각오 발표 등으로 진행됨 우리 동아리는 이번 특강을 통해 독도지킴이로서 독도의용수비대 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함.
	28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 봉사활동	○	-독도필통을 제작 여러 NGO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전달하는 봉사, 체험활동

				을 실시하며 독도에 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함. -독도 사랑 활동 취지 안내 및 독도 바로알기 역사 교육 동영상 시청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체험 봉사활동 -꿈, 희망, 평화의 편지쓰기 **-독도사랑을 실천하면서 해외 구호 활동 및 독도 해외 홍보에 기여함.**
7	12	이야기와 체험이 있는 한밭독도 사진 상설전시관 방문	○	대전교육문화의 전당, 한밭교육박물관 내 한밭독도전시관을 견학함. 한밭독도전시관은 '한국의 아름다운 독도'를 주제로 독도에 관한 사진 한 컷 한 컷이 모두 우리의 영토 독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직시하고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뿐만 아니라 독도의 문제가 되는 사항들과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었음. 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라는 동영상은 '역사는 알고 있다' '일본도 알고 있다' '세계도 알고 있다'는 소주제를 달고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인지 역사적 사료들을 들어가며 실증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해 주어, 그간 우리가 배우고 알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함.(7월6일)
	19	교내 독도 인포그래픽 전시	○	독도의 천연자원,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들, 독도 동해 표기에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한일간 독도 전쟁, 독도의 역사와 진실, 독도 관련 역사 서적, 독도를 지킨 영웅들 등을 내용으로 알기쉽고 흥미롭고 일목요연하게 시각화해 인포그래픽하여 전시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8	15	손도장 태극기 퍼포먼스, 독도 플래시몹 참가	×	지자제의 사정으로 이 행사가 개최되지 않음.
	10	**제10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시상식 및 2019년도 상반기 독도기자단 국제간담회**	**신규**	독도사랑해 동아리 소속 임현서(1)와 성현석(1)이 8월10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대전광역시장상과 대전시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함. 그리고, 위 두 학생은 '2019년도 상반기 독도기자단 국제간담회'에도 참가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독도지킴이로서 독도와 동해의 표기 오류를 바로 시정해 나가는 일에 계속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을 발표함.
	24	『독도신문』 제5호 제작	○	우리 독도사랑해는 지난 7월20일 여름방학 첫 날을 일일기자 체험활동을 하면서 의미있게 시작함.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꼬박 7시간 동안 신문과 기자의 중요성과 취재요령 및 기사작성 방법을 강의 듣고, 실제 취재와 기사문을 작성한 후 편집회의를 통해 제목을 정하고 기사 내용 등을 교열하는 등 하루 동안 기자가 되어 바쁜 일정을 소화함. 우리 독도사랑해는 이날 체험활동을 통해 그간 우리들의 독도사랑 실천 활동 내용을 우리가 선출한 김민주 편집국장과 함께 팀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다시 한번 기사화하여 '독도신문' 제5호를 발간하고 독도수호의 의지를 새롭게 다짐. 중도일보 7월22일바 보도-대전이문고 학생들 " 기자체험교육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72101 0008622
9	6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등 독도 관련 각종 행사 참가	○	제9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9명 입상 시 우수상 오현아(3) 전국3위, 특선 최지영(2) 산문 특선 김나희(1), 조효린(1), 임현서(1), 방다혜(2), 입선 성현석(1), 장서영(1), 차영주(2), 김유나(3) [제9회 독도문예대전] 수상자 명단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907 30.010230810280001
	21	독도체험관 답사(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견학	○	6월7일 독도체험관을 찾아 서울 도심 속에서 독도 체험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대응하는 역사와 논리를 학습하고 독도 사랑을 실천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독도의 1500년 역사의 물결과 독도의 천연자원과 환경, 독도에 관련된 법률과 일본의 억지 논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체계 있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독도의 축소판 모형과 생태계, 그리고 3D 독도 동영상 관람, 독도신문 만들기 등을 하며 독도의 아름다움과 미래를 탐구함. 같은 날 서대무형무소 역사관에 들려 나라사랑

				체험학습을 실시,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운동 지사들이 우리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며 갖은 고초를 겪었던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답사함.
10	18	독도 토론대회	○	-강정민의 ‘독도반환 청구소송’, 하지환의 ’독도 인 더 헤이그’, 김하기의 ‘독도전쟁’ 등의 독도관련 소설 읽고 독후감상 내용 발표하기-발표 내용 중 이것이 만약 현실이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더 좋았을까 독서토론하기 -독도에 대한 치밀한 역사 비판과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독도에 대한 창의적 발표 실시(10월25일)
	25	독도의 날 행사: 계기교육과 독도사랑 학용품 모으기와 독도사랑 영문편지 쓰기	○	-독도의 날 계기 교육과 독도 필통과 독도 에코백에 우리의 아름다운 땅 독도의 모습과 독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학용품과 독도사랑 영문편지를 여러 NGO를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전달하기 위한 작업임
	31	**독도바로알기 대회 개최**	**신규**	-독도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독도교육 활성화** 계기 마련 -독도에 대한 **체계적 지식 함양**과 **올바른 영토주권의식 제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대상) 1,2년 학생 중 희망자 및 담임 추천 ○(문항) 독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본래 10월25일 독도의 날에 개최되었으나 1학년들의 수학여행 관계로 10월31일 개최됨
	11.01	**독도 에코백 만들기 창의 체험활동**	**신규**	독도사랑해 동아리는 11월1일 본교 세종실에서 개최한 독도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독도 에코백 만들기를 전개함. ‘나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섬 독도를 사랑합니다’와 독도 그림과 함께 ‘DOKDO KOREA EAST SEA’를 에코백에 마카로 수 놓으며 독도 홍보에 앞장서며 독도 사랑을 실천함. 이 행사는 본래 10월25일 독도의 날 계기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1학년 수학여행의 일정과 겹쳐 부득이 1주일 연기되어 11월1일 전개된 것임.

▲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으로 본 독도” 특강을 한 호사카유지 교수와 함께(4.12)

▲독도지킴이 발대식 및 독도수호 실천 결의대회(4.19)

▲외교부 안한별 사무관 초청, “영토주권, 동해 명칭의 역사성 및 동해 표기의 당위성” 특강(5.17)

▲독도기자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문제익 회장과 함께(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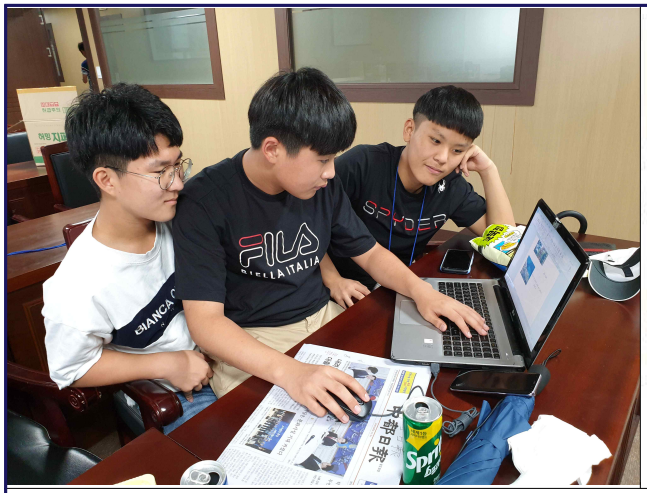
▲서울 도심 속에서 독도 체험을 위한 독도체험관을 답사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함(6.7)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우리의 국권 수호를 위한 나라 사랑 실천을 다짐함(6.7)

▲독도탐방 기념촬영 좌로부터 전홍곤 선생님, 최지영(2), 양예진(2)의 모습(6.10)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수호정신과 나라사랑 정신 계승교육(6.14)

▲한밭교육박물관 한밭독도전시관 견학(7.6)



대전이문고 학생 18명이 지난 20일 중도일보 '2019 NIE 프로그램 1일 기자체험교육'에 참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상진 기자

"신문제작 신기하고 재밌어요"

▲중도일보 일일 신문기자 체험을 통해 그간의 독도지킴이 활동을 기사화하여 '독도신문' 제5호를 발간함 (7.20)

▲독도소설 감상 후기 발표 후
독도 영유권 해결책 모색을 위한 독도 토론(10.25)

▲제4회 독도바로알기 대회 개최(10.31)

▲독도 에코백 만들기 독도사랑 월드 프렌드 창의 체험 봉사활동(11.1)

3. 우리 동아리 활동 자랑*

1. 활동 개요

o 명칭: **일일 신문기자 체험활동과 독도신문 만들기**

o 목적: 독도사랑을 실천한 여러 활동들을 지면으로 통합하여 글쓰기로 정리해서 관리 할 수 있으며, 신문제작 과정을 통해 독도 수호의지와 독도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독도 사랑을 생활화하고 일본의 야욕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일시 및 장소: **2019년 7월20일 중도일보**

o 참여자 : **독도사랑海 20명**

2. 활동 내용 :

■ 중도일보 일일 신문기자 체험활동

-신문제작 현장 견학(편집국, 자료실) 및 신문이란? 신문제작 과정 강의(PPT)
-기사 작성법 및 취재기법 강의
-학생 편집국장 선발 및 조별 취재계획 마련
-계룡문고 독도 신간도서 취재와 독도 동해표기법 설문조사 세이 백화점 등
-현직 기자에게 듣는 독도현안 인터뷰
-취재 기사 작성 및 교열,
-편집 맛보기 및 편집 제목 달기와 신문 편집

■ 이문『독도신문』제5호 발간

◆ **독도를 향한 우리들의 굳건한 외침**
독도지킴이 발대식 개최, 수호 실천 결의문 채택도, 日 영유권 야욕 맞서기로

◆ **"독도 동해표기 오류 시정하자" 독도기자단 간담회 열리다**

◆ **일본 야욕 맞서... 파도 헤치고 독도 탐방 감격 누려**
기상 악화로 2주 연기 뒤 출발, 박물관, 수비대기념관도 관람

◆ **올바른 독도 기식을 알아가다** 한밭독도전사관 견학 사진 등으로 역사 환경 배워

◆ **학생 88% " 독도는 우리 땅 증명할 수 있어"**

◆ **NO BOYCOTT JAPAN NO 안사, 안가**
독도를 수호하는 마음으로

■ 신문은 전지크기 올컬러로 인쇄하여 학교 게시판 부착해 홍보

3. 활동 성과 :

o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독도문제 및 해결방안 공론화 시도
o 신문 지면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 추구 및 가치를 함양하며 사회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산 교육장
o 신문기사를 작성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의견대립, 다양한 견해차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함양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다양성의 인식과 갈등 해결능력 신장
o 독도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취재활동을 통해 독도사랑을 기사화하고 활자화하여 일상에서 독도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자긍심을 키우는데 일조함
o 독도기자 활동과 신문 제작을 통해 진로 연계 융합인재 육성에 기여

독도신문

대전이문고등학교 | 대표전화 042)930-0800 | 제 5 호 | www.imunhs.djsch.kr |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독도를 향한 우리들의 굳건한 외침

독도지킴이 발대식 개최
수호 실천 결의문 채택도
日 영유권 야욕 맞서 기로

대전이문고등학교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는 제4회 독도교육주간을 맞아 본교 세종실에서 '2019 독도지킴이 발대식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문펜 동아리 학생들은 EBS에서 방영된 '독도의 숨은 영웅들'를 보면서 자랑스러운 독도지킴이로서의 실천을 다짐했다.

최근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의 아름다운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군국주의회 책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문펜-독도사랑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고 수호할 것을 다짐하며 4개 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이문고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 20여명은 4월 19일 세종실에서 '2019 독도지킴이 발대식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언하였다.

채택된 독도수호 결의문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고 수호할 것을 다짐할 내용이 명시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환경 및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 독도의 진실을 바로 알고 바로 알리는 일에 앞장선다', '일본의 야욕에 분개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독도 지킴이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 있다.

또 '우리는 일본이 남의 영토를 넘보는 비신사적이고 야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동북아를 주축으로 한 세계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우리는 독도를 사랑하는 독도지킴이 활동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세계 민주시민 의식함양에 앞장선다'고 적혀 있다.

결의회가 진행된 뒤,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일본의 야욕에 맞서 독도 수호 정신을 간직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결의회를 주최한 방경태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함양하고 독도 지킴이의 숭고한 정신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김민주·양예진·이유정 기자

지난 6일 대전이문고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 학생들이 한발독도전시관에 방문했다.

올바른 독도지식을 알아가다

이문펜, 한발독도전시관 견학
사진 등으로 역사·환경 배워

대전이문고등학교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는 7월 6일 대전교육문화회의 전당, 한발교육박물관 내 한발독도전시관을 견학했다.

한발독도전시관은 '한국의 아름다운 독도'를 주제로 독도에 관한 사진 한 컷 한 컷이 모두 우리의 영토 독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로 분쟁과 되는 사항을 직시하고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뿐 아니라 독도의 분쟁과 되는 사항들과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대해서도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보여줬다.

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라는 동영상은 '역사를 알고 있다' '세계도 알고 있다'는 소주제를 달고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인지 역사적 사료들을 들어가며 심층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해, 그간 우리가 배우고 알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해시켜 줬다. 우리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는 "독도지킴이로서 이번 독도사진전 관람을 통해 독도의 관한 사항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우리의 국토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백연우·김태양 기자

"독도 동해표기 오류 시정하자" 독도 기자단 간담회 열리다

"우리 영토에 대해 더 잘 알게 돼" 수호 의지 다져

대전이문고 '이문펜(pen)-독도 사랑해' 동아리 20명 학생들은 지난 5월 24일에 이문고 세종실에서 독도기자단 간담회를 했다.

이문펜 학생들은 지난 4월 나라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소리 신문기자단 미션을 수행한 후 독도에 관한 이 간담회를 하면서 독도 동해 표기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독도 수호의 의지를 굳혔다.

이 간담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나라(독도)살리기운동본부의 문재익 회장과 대전이문고등학교의 김동춘 학교장이 참여했다. 문재익 회장은 2019년 본부 독도수호활동의 방향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또 학생들이 좀 더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독도 동해 표시 시정에 대해 배우고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2학년 차영주 학생(2학년 7반)과 최지영 학생(2학년 7반)과 1학년 임현서 학생(1학년 8반)은 본교 독도기자단장과 부단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독도 수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5월 24일 대전이문고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 학생들이 독도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 간담회에 참여한 성현석 학생(1학년 1반)은 "이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독도에 더 잘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독도를 보존하고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천성민·성현석 기자

학생 88% "독도는 우리땅 증명할 수 있어"

2학년 대상 인식실태 조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대전이문고 2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집계됐다.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의 역사적 증거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등 총 4가지의 질문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인 독도 표기에 관한 질문에는 옳은 표현인 독도(Dokdo)에 100%가 응답했다. 두 번째 동해 표기에 관련된 질문은 동해(East sea), 동해(Donghae)에 각각 65%, 35%의 응답률을 보였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를 증명할 수 있냐는 질문엔 15%가 '매우 그렇다', 38%가 '그렇다', 35%가 '보통이다'라고 각각 답했다. 또한 '매우 그렇지 않다'에는 9%가 대답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의 국제법적 증거에 대한 질문에 세종실록지리지, 고종황제 칙령 제 41호, 동국문헌비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을사조약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민주·양예진·이유정 기자

일본 야욕 맞서… 파도 헤치고 독도 탐방 감격누려

기상악화로 2주 연기 뒤 출발
박물관·수비대기념관 관람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2019 독도지킴이학교 독도탐방'에 참여한 대전이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순례를 마쳤다. 대전이문고와 이문펜-독도사랑해 소속 양예진, 최지영 학생과 본교 교사 한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독도지킴이 학교 독도탐방'은 동북아역사재단과 국립청소년해양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초·중·고등학교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정된 학교의 교사와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독도와 울릉도 탐방을 통해 독도와 울릉도 역사·지리·지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본래는 5월25일부터 28일까지 탐방이 계획되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2주가 연기되어 비가 오는 가운데 출발하여 우여곡절 끝에 탐방을 마쳤다.

대전이문고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 소속 양예진<오른쪽>, 최지영<왼쪽> 학생이 독도경비대원과 함께 독도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독도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8일에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9일에는 울릉도에서 울릉도 해양포구류의 쉼터 통구미 해변, 거북바위, 독도케이블카 및 독도박물관 관람,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관람, 울릉도 트레킹, 울릉도 관음도, 나리분지 관광, 청소년 독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10일 독도에 입항하는 데 성공하여 태극기가 새겨진 '대한민국 우리 땅 독도' 현수막을 들고 감격적인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 방경태 지도교사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지만 일본과의 영유분쟁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우리 동아리는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독도 지킴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큰 포부를 밝혔다. 대전이문고등학교가 독도지킴이학교로서 나아갈 행보가 기대된다.

오윤경·정예은·조효리 기자

"실제로 밟은 독도땅, 감동했어요"

인터뷰 톡! TALK-독도탐방을 다녀온 양예진 학생

Q1. 독도탐방을 가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A1. 처음에 1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독도에 가기 전 울릉도에서 독도의 흔적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통구미몽돌해변, 독도 케이블카, 독도의용수비대등의 활동을 한 후 독도로 향하였습니다.

Q2. 독도탐방을 가기 전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A2. 독도를 탐방 전에 외부 국제 법무부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제법적으로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는 꽤 많이 알고 방문하였습니다.

Q3. 독도탐방을 가서 한 활동은?

A3. 독도에 가기 전 울릉도에서 독도와 관련되어 남겨진 것들을 탐방하고 독도를 방문하여 통구미몽돌해변, 거북바위 울릉도 트레킹 그리고 나리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Q4. 독도탐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4. 독도를 가는 배가 너무 출렁거려서 고생했지만 처음 독도에 딱 도착했을 때 그리고 도착해서 독도경비대 분들과 사진을 찍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독도의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Q5. 독도탐방을 하고나서 새로 알게 된 점은?

A5. 생각보다 독도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아서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과 독도를 수호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Q6. 독도탐방을 하기 전과 후의 생각?

A6. 독도 탐방을 하기 전에는 독도에 대한 건강한 마음이 부족했는데 독도를 방문하고 교육을 받으니 독도 수호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윤경·정예은·조효리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고, 국민이 일본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이문고 이문펜-독도사랑해 동아리는 불매운동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2]

활 동 지 원 비 정 산 서

대전이문고등학교 독도사랑海반

지도 교사 : **방 경 태**

구 분	내 역	계획금액(원)	집행금액(원)	비 고
활동비	o 독도교육 관련 전문 강사료 (200,000원×1회)	200,000	0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무료 강사지원
	o 활동 간식비(2,500원×20명×2회)	100,000	27,600	독도에코백 및 독도홍보자 음료
	o 현수막 제작비(50,000원×2회)	100,000	0	교비지원
	o 독도사랑 독도필통 만들기 재료비 (5,000원×25개×1회)	125,000	250,000	독도 에코백 만들기로 대체 (10,000*25)
	o 자료집 인쇄비(독도신문 전지 올컬러 4장) (100,000원×1회)	100,000	0	중도일보 제공
	o 나라사랑 독도사랑 체험학습 기차표, 입장료, 중식 등	125,000	122,400	독도탐방 교통비 지원(대전-포항 KTX 2명 왕복)
			400,000	독도체험관 체험학습 임대차량비(대전-서울 17인승)
	o 독도의 날 행사, 독도 영문편지쓰기 등 학습재료 구입	50,000	0	각자 구입
운영비	o 독도 NIE 수업 재료비(스캐치북 등)	50,000	50,000	(2,500원×20명×1회)
	o 참고문헌 구입비(독도 토론 및 탐구보고서 작성용)	150,000	150,000	(독도 인더 헤이그, 독도전쟁 등 10권)
총 계		1,000,000	1,000,000	잔 액(원) 0

[별도 붙임] 관련 지출결의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출